



**월간양계,
양계인 권익보호에 중점둔다.**

「월간양계」지가 지난 1969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가금학회('73년 현 대한양계협회로 통합)의 간행물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초동에서 창간호를 내면서 양계업계의 정보화 시대를 선언했다.

당시 발행인이었던 오봉국박사(현 본회상임고문)는 창간사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우리가 항상 갈망하는 우리의 바램이라고 하는 말로 월간양계지 발행의 의미를 표출시켰다.

이후 6호까지는 한국가금협회에서 발행하다가 7호부터 대한양계협회로 발행소를 변경하여 현재(통권 289호)에 이르고 있다.

발행 초창기인 '70년대에는 주로 선진외국

의 양계기술정보 전달에 주력하여 오면서 낙후된 기술을 끌어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때야말로 산학협동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사를 통해 느낄 수 있다.

'80년대에는 서서히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대군, 소군의 갈등해소 방안이 많이 제시되는가 하면, 유통의 체계화에 보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세미나에 있어서도 '70년대에는 지역 단위로 개최된 반면 '80년대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단절되어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잡지에 게재되는 내용이 국제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수입개방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것이 또 다른 양상임을 쉽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계속 예고하고 있음에도 생산자들은 변화의 분수령에 올라 섰을 때 가장 우왕좌왕하는데 특히 종전의 감(그간의 경험으로 얻은 판단력)을 쉽게 벗어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실제 전화 문의를 받아 보면 알 수 있는데 1~2년 전에 이미 홍보가 끝난 관련법의 개정내용이나 행정지침 등을 문의할 때면 안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된다.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계인이라면 누구 보다도 양계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빠짐 없이 알아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월간양계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월간양계지는 좀더 질적인 발전을 기하여 국제화 시대에 양계인들이 존립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를 하고 있다.

'93년의 양계경기는 말그대로 강통계좌나 다름없다. 계란, 닭고기, 병아리 무엇하나 양계인을 기쁘게 해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양계업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일까란 질문을 하게 된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만 있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아직도 양계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어느 단계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보다 더 배타적이 되어가고 있는 감도 없지는 않다. 내 농장의 장부를 남이 보면 무슨 치녀가 속옷자락이라도 내보인양 움추리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다. 속옷이 보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과감하게 초미니 스키트를 입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제는 양계인들이 비밀 아닌 비밀로 담을 쌓아서도 결코 이룰 것이 없다. 말그대로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집에 있는 닭 마리수만 감춘다고 소득이 올라갈리가 없다. 그 결과는 모두가 과잉생산만 남아 만성적인 적자만 연출해내는 서툰 몸짓에 불과하다고 본다.

금년의 불황은 많은 양계인들이 너무나 높은 담을 쌓은데서 더 깊어졌다.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자금이 투입되고 지역적으로 신생농가(이전포함)가 2배 이상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육계업은 이미 계열주체를 통하여 40% 선의 닭이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다. 병아리 생산에 있어서는 전체 시장의 약 50%를 직·간접으로 장악하고 있어 이미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계란은 5%만이 G.P센타를 통하여 공급된다 하지만 여전히 중간상인들의 입김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종전의 생산방식으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엇이 사각지대를 만들었나 생각해 볼 때 무관심이었다는 대답 밖에 없을 것이다. 조만간 육계의 경우 계약사육이 60%선에 이르면 기존 육계업자는 남은 40%의 생산량을 놓고 또 경쟁을 해갈 것인가 진지하게 변화되는 현

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불황의 원천은 결국 양계인들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제부터라도 변화되는 정세를 좀더 자세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장기불황을 이겨내는 지름길일 것이다.

닭 육종개량, 시장확보상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전래되어온 우리나라 재래종닭은 몇차례의 전쟁과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업성 때문에 모두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토종닭을 보존하기 위해 축산시험장 가금과에서 강원 및 영·호남 산간지방을 뒤져 교잡은 되었으나 혈통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닭을 수집하여 농가에 보급시킨 결과 이제는 그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축산법과 관련하여 종계로 인정을 받을 만큼 높은 수준에는 올라와 있지 못한 편이다. 전국 각지의 유원지에 가보면 쉽게 눈에 띄는 것이 토종닭이란 음식점 간판이다. 실상 알고 보면 이들 대부분이 토종닭의 혈통이 아닌 개량종을 토종닭과 유사하게 체모색을 개량한 것들이어서 먹고나도 씹쓸한 맛이 남게 된다.

닭의 육종은 국립종축원이 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그간 천호그룹이 '81년에 마니육종을 설립하여 순계를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 내고자 본격적인 육종사업을 시작하여 마니커와 마니나를 공급하기 시작



하다가 최근에는 토종닭과 유사한 육질을 가진 천금계를 개발 보급하기에 이르다 갑작스런 부도사태를 맞아 자칫하면 10여년 이상의 육종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까지 깊은 역사를 가진 한협 후신인 새날육종이 토종닭을 만들어내 공식적으로 종계등록을 받은 곳은 한곳 뿐이다.

이미 일본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적옥(赤玉)계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대만은 토종닭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경쟁력을 한차원 높인 예도 있다.

우리는 이제 토종닭에 대한 필요성에 눈을 뜨고 있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혈통이 전혀 다른 외국계를 토종닭이라고 소비자에게 공급해 왔다. 이제는 토종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품종개량 즉 육종사업이 본격적으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산란교잡종이나 체모만 닮은 개량종을 토종닭이라고 비싼값에 공급한다는 것은 소비에 한계를 부를 위험이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토종닭과 동일한 육질과 체모를 가진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양계**